

[3 월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사무엘상 1:9-18

찬송가: 1) 새 406 (통 464)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2) 새 408 (통 466)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제목: 내 마음에 들어온 브닌나

여는질문:

나의 마음에 근심과 슬픔을 가져오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마음이 지배당하곤 합니다.)

본문이해:

우리의 마음에 누가 들어와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한나의 마음이 슬펐던 것은 자신을 슬프게 만드는 브닌나가 그녀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한나에게 빼앗긴 브닌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저주하고 조롱했습니다. 브닌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만들었고, 한나는 그것이 괴로워 울며 음식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지만 그 위로가 한나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슬프기는 브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닌나의 마음에도 자신의 남편의 사랑을 빼앗은 한나가 들어와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나를 저주하고 공격하였습니다. 한나를 괴롭힘으로 자신의 슬픔을 위로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브닌나와 다른 점은 한나는 자신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한나는 그 마음에 큰 통곡이 있지만 입도 못 열고 속으로 슬퍼하고 통곡해야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녀의 사정을 듣고서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길 원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나는 말씀을 믿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던 브닌나를 보내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녀의 상황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브닌나가 변한 것도 아니고, 한나가 임신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니 다시는 근심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브닌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녀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사람에 대한 미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시기, 사람에 대한 분노, 장래의 불안, 피해의식 등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을 모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의 주변은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말씀속으로

1.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어떻게 위로하였습니까? 그 위로가 소용이 있었나요? (1:8)

(남편 엘가나 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 자신이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며 말을 건네지만, 한나에게 있는 슬픔은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2. 한나가 브닌나로 인해 마음이 괴로웠을 때 한 일은 무엇입니까? (1:10)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이것은 브닌나와 차별이 되는 행동입니다. 그녀는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 후에 평강을 되찾습니다. 기도하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삶 속으로

1.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마음의 슬픔이나 스트레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슬픔 때에 당신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존재하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한 상대와 호전적으로 대립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술이나 게임과 같은 세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를 나누도록 합니다.)

2.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거하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슬픔과 염려가 있을 때에 많은 분들이 그것들에게 마음을 점령당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실 수 있도록 주님과 의 소통,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 생활에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암송구절: 사무엘상 1:18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자녀와 나눔

스트레스가 있을 때 너는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니? 하나님께 그 모든 염려를 말기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자녀들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3 월 두 번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사무엘상 9:5-6, 11-17

찬송가: 1) 새 370 (통 455)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 새 380 (통 424) 나의 생명 되신 주

3) 새 543 장(통 342) 어려운 일 당할 때

제목: 방황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는질문:

당신은 여행 중에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계획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길을 헤매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인도하심의 방식 중에 하나임을 인식하며, 본문 이해로 넘어가십시오)

본문이해:

우리의 삶이 내가 정하고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불안해 합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 것은, 비록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방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환과 함께 나귀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으려고 하는 나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나귀의 행방을 묻고, 낯선 곳까지 돌아다니며 찾아 보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던 사울은 아버지가 자신을 걱정할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사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나귀의 행방을 물으면 알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환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과 그 사환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만나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이 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사울은 자신이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해 방황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방황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방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방황의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나의 삶의 일상을 벗어나게 하시거나, 내 계획을 틀어 버리셔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고자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에 비록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찾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나귀를 찾아 방황하며 염려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 속으로

1. 나귀를 찾던 사울은 무엇을 걱정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까? (9:5)

(사울은 아버지께서 나귀를 찾아오라고 해서 나왔지만,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버지가 자신들을 걱정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2.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사울은 언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까? (9:16)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생각이나 상상도 전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방황케 하셔서 사무엘에게 이르게 하신 후 당신의 계획을 알려 주셨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방황의 시간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인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삶 속으로

1. 당신이 열심을 내어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때의 당신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때로 내가 계획한 직장, 학교 진학, 결혼 계획, 하루의 일상 등이 환경의 변화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없던 일들을 할 때에, 당황스럽고, 때로는 우울하고 실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2. 살아오면서 비록 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잠언 19:21 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와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계획한 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의 계획을 무력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사람들 편에서 보면 방향의 때이지만, 그때에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이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됩니다.)

암송구절: 잠언 19:21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와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

자녀와 나눔

네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네 심정은 어떠니? 그런데 왜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 같으니?

(자녀가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기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기회가 되도록 지도합니다.)

[3 월 세 번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사무엘상 16:4-13

찬송가: 1) 새 420 (통 212) 너 성결키 위해
2) 새 449 (통 377) 예수 따라가며
정결한 마음주시옵소서

제목: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여는 질문:

자신의 외모 중에서 가장 자신있어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외모로 인해서 유익을 보거나, 반대로 손해를 본 적은 있습니까?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생김새, 피부색깔, 말투와 같은 외모적인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실지를 본문 이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해:

영화 “관상”에 보면 조선의 수양대군이 한양의 여러 점쟁이들과 관상쟁이를 불러 모아 자신의 운수를 묻습니다. 그리고 한 관상쟁이에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묻습니다. 이미 왕인 수양대군은 자신이 왕으로 적합한 인물임을 관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확인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외모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거나, 자신이 원하는 외모로 성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모를 주실 때는 이를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점치거나, 서로를 평가할 절대적인 기준으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이새의 아들 중에 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름 부으시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렸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길,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만드실 때 외모에 따라 뭔가 될 것을 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이새의 아들 일곱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남았는데, 하나님은 이새의 가장 막내 아들을 택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셨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다윗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이의 외모를 보며 그 사람을 평가하곤 합니다. 때로 외모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비록 사람이 다른 사람의 중심(마음, 정신)을 바로 알 수 없고, 그 마음을 아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보여지는 외모에 의해서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외모에 현혹되어져 살아갈 때 성도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아름다움에 더 가치를 두고, 이를 보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심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1)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습니까? (16:7)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곧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속사람, 의도, 동기 등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2)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은 무엇에 크게 감동되었습니까? (16:13)

(다윗은 여호와와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으로 사용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삶 속으로

1) 당신은 인종이나, 피부색으로 인해 차별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반대로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편견을 가지고 대한 적은 없었습니까?

(이민사회에서 인종적인 차별을 받거나 주는 것은 흔한 경험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외모적인 다름에서 오는 편견임을 자각함으로, 믿는 이들이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마음을 봐 주시기를 원합니까? 그 마음을 보여 드리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22-23 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모습도 하나님께 보여드릴 마음일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19 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기 원치 아니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암송구절: 사무엘상 16: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옹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녀와의 나눔

너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니? 하나님께 너의 어떤 아름다움을 보여 드리기를 원하니?

(자녀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보고 계시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의 중심,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원하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월 네 번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사무엘상 25:23-33

찬송가: 1) 새 341 (통 367) 십자가를 내가 지고

2) 새 453 (통 506)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제목: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아비가일

여는 질문:

과거에 당신을 화가 나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이유로 화가 났고, 그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불쾌해 하고, 이로 인해 분노를 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노에 휩싸여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은 다윗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일로 범죄하지 않게 되는데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충고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이해:

사람 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죄를 짓도록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갈멜에 머물고 있을 때, 그들은 나발의 양을 치는 목자들과 양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 날에 다윗은 사람을 나발에게 보내어 음식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양의 털을 깎는 날은 잔치날과 같아서 서로 음식을 나누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듣고, “요즈음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말하며 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나발은 그동안 베푼 다윗의 선의를 무시했고, 마치 다윗이 주인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나온 종인 것처럼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발의 말을 들은 다윗은 사백명을 무장시켜 나발에게로 향합니다. 다윗은 나발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5:34)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챙겨 다윗을 만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나발의 어리석음을 말하며 개의치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위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발과 같은 자를 죽임으로 손에 피를 흘리고 친히 보복하는 일을 막으시기 위해 자신을 보내셨다고 자신이 온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텐데, 나발을 죽인 일로 인해 나중에 슬퍼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아비가일은 나발에 대한 다윗의 결심을 돌이키도록 설득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자신을 막아 무자비하게 보복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그녀의 지혜를 칭찬하고 복을 빕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크게 분을 내며,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분노에 이끌리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하며, 죄악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중재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만한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1)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떠한 일을 막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보냈다고 합니까? (25:26)

(다윗은 나발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나발과 그의 소유의 남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런 다윗에게 가서, 그 보복으로 인해 다윗이 살인함으로 겪게될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막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며 다윗을

설득합니다)

2)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25:32-33)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자신에게 보내셔서, 다윗이 나발을 피로 보복하지 않게 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삶 속으로

1) 당신이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중보해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바른 판단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조언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을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2) 어떤 사람들이 불화와 갈등 속에 있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때로 사람들은 갈등적인 요소가 있을 때 이를 더 악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볼 때 불화의 관계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를 화해시키고 중보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암송구절: 사무엘상 25:33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자녀와의 나눔

너는 주로 어떠한 일을 당할 때 화가 나니? 네가 화가 나서 잘못된 일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중재해 주는 사람은 누가 있니?

(자녀들이 화가 나는 상황을 듣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며,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부모나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신앙의 조언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 주도록 합니다.)